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전력

전춘성 진안군수, 국회 찾아 5개 군 추가 선정 위한 예산안 통과 강력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군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전춘성 군수는 지역구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 박형수 의원, 임미애 의원, 서왕진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12개 군 모두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2년간(2026~2027년)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1차 심사를 통해 12개 군이 선정됐으나 최종적으로는 7개 군만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10월 29일 장수군, 곡성군, 봉화군, 옥천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1차 선정된 5개 군 추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13일 국회 농림축



전춘성 진안군수는 17일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5개 군 추가 선정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강력히 건의했다.

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를 약 1,706억 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이제 예산 증액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만이 마지막 관문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전춘성 군수는 “농해수위의 증액 결

정은 12개 군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예결위에서 해당 예산이 원안 그대로 반영 되도록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민의 간절한 염원과 지역의 미래가 걸린 만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탄력

무주군, 지원사업 선정...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 확보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한 '2026년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무주군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고령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의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주군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스마트농업 비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사업(총사업비 1백억 원 규모)'은 2026년 말까지 무중면 증산리 일원 61,500㎡ 부지에 임대형 온실과 냉난방 설비, 환기시설, 환경제어설비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임대형 온실과 육묘장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온실 공사를 추진 중이다.

무주군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일 황인홍 무주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청년창업 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앞으로 무주군은 입지 조건에 적합한 온실 구조와 자동화시스템 도입, 청년 임대·창업 지원체계 마련, 전문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만의 특화된 고령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와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무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거나,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무주군이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4분의 끝내기' 확보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군청을 비롯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순회하며 공무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7일에는 무주소방서의 전문 강사가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인지 및 119 신고 요령, △심폐소생술의 기본 절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을 진행했다.

무주군은 보건사업(건강증진, 치매, 정신)사업과도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용한 실습을 진행했다.

무주군은 보건사업(건강증진, 치매, 정신)사업과도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도 지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화목보일러 화재 원인84% '부주의'...무주소방서,주의 당부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최근 3년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가 전체의 84%로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87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와 약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73건(8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기계적 요인

11건(14%), 전기적 요인 2건(2%) 등으로 나타나 화재 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주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김장수 무주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사용 전 반드시 내부 청소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라며 “보일러는 불연재로 구축된 별도 공간에 설치하고, 팔각·나무 부스러기 등 가연물은 최소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티바이오텍, 민간 씨수소 선발 성공

'한우개량 발전 세미나' 개최

장수군은 2025년 하반기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가 추진한 한우 후보 씨수소 검증에서 장수군 소재 한우 종축개량 전문기업 이티바이오텍(대표 정연길)이 민간 씨수소 선발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한우개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티바이오텍은 지난 14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한우개량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장수군수, 관계 기관 전문가를 비롯해 전국 한우농가와 이티바이오텍 조합원 200여 명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의

'유전체 분석 기반 민간 씨수소 선발과 개량 방향' 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어 이티바이오텍 정연길 대표가 OFU-IVF 기술, 선발된 후보 씨수소의 주요 특성, 향후 정액 보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현장에서 소개된 OFU-IVF 기술은 살아있는 암소의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으로 수정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짧은 기간에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자손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기존 인공수정보다 효율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이티바이오텍은 장수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장수형 종모우 개발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성료

진안군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일원에서 열린 '제7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방문객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무대공연과 진안에서 생산된 막걸리를 활용한 각테일쇼가 진행되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우리집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며 김치판매, 김치골든벨, 김치 빨리 버무리기 대회, 김치오락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또한 김치와 보쌈을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부스, 지역 농산물로 빚은 막걸리를 단돈 천원에 맛볼 수 있는 '천원막걸리', 대표 메뉴인 비비큐 시식



행사 또한 많은 관객이 찾으며 호평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독감 유행 따른 예방접종 당부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4주 차(10월 26일~11월 1일) 독감 의심 환자 수는 전주 대비 약 67% 증가했으며, 42주차와 비교했을 때는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연령별 환자 분포도를 보면 0~6세 인플루엔자 환자가 23.2명, 7~18세 54.4명으로 소아·청소년 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인플루엔자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으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과 더불어 일반 성인도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관내 위탁의료기관은 진안군의료원, 구세의원,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 송외과의원, 진안의원, 우리가정의학과의원,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이외과정형외과의원 8개소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겨울철 라돈 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 운영

장수군은 겨울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라돈 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며 군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로, 무색·무취의 기체 상태로 존재하며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가 줄어들어 라돈 농도가 높아지기 쉬워, 정기적인 환기와 실내공기질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은 △실내공기질 자가 점검 △겨울철 건강환경 조성 △라돈 저감 생활화 확산을 목표로 2018년부터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등록상 장수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인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대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2일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